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와 아만다 사이프리트

햇살과도 같이 빛나는 동시에 편안하고 소중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메종의 프렌즈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조용한 자신감의 아우라를 내뿜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함을 품고 있으며 그녀의 말 속에서는 기품과 진정성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엿보입니다.

메종의 프렌즈 아만다 사이프리트(Amanda Seyfried)는 골든 글로브와 오스카상 최우수 조연상 후보로 오른 영화 *맹크(Mank)*에서의 눈부신 성공에 이어, 예거 르쿨트르와 함께한 특별한 화보 촬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이번 화보는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기념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여성적 관점에서 여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뉴욕 기반 사진 작가이자 예술가인 알리크(Alique)와 함께 이번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화보에서 아만다는 현재 컬렉션의 핑크 골드 리베르소 원 듀에토를 착용하고,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과 버건디 레드 가죽 스트랩으로 스타일을 더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링은 아만다가 구현하는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리베르소는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이고 지극히 순수한 시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라고 아만다 사이프리트는 리베르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셔츠나 드레스와 함께 착용했을 때 제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시계를 좋아해요. 리베르소가 바로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디테일과 예술성이 담겨 있어요. 두



개의 다이얼이 하나의 디자인 안에서 매끄럽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놀라워요. 이 시계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교한 개성으로 재능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2021 년, 90 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